노스님 복지를 위한 승보공양
• AR5동 B : 049-700-1071(대표 1.2020)
• 직접신청 : 02)2011-1726, 조계종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중앙은 (구)대한지대)

佛敎新聞

불기 2557년 5월 8일 (2013년 / 단기 4346년 불력 3월29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11호 수

신일상론 불자들의 여행사
대우투어 daesoungtour
여보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회 발행

가장 기다려지는 연등회 '함께 즐기는 국민축제'

제등행렬 때 선보일 장엄물 제작 '경쟁'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봉축 분위기 '고조'

부처님오신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봉축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봉축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는 오는 17일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 전통하는 각종 봉축행사 중 백미 연등회 기념식 등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연등회가 종교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봉축행사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내용을 가미한 행사들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처음 대한민국 1번지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 불교사 성가합창 모음으로 한 장엄물을 설치한 봉축위원회는 벚꽃 흩어지는 계절을 만들어 가을 숲가꾸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장엄물이 설치되고 다양한 색상의 연등이 거리를 장식하면서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이란 봉축표어에 어울리는 대표로 떠올라야 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을 예상된다.

봉축위원회는 봉축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전통 전시공간을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연등을 다는 것은 불교만의 종속이 나타나 반족 고유의 풍습이다. 조선시대에는 사월 중 이라 일에도 연등을 걸었다. 출판사 한국불교민속학회장은 "가장큰다 연등을 하나씩 다는 고유의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연등회는 종교를 떠나 국민들도 참여하는 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문화재위원에 스님 7명 3면
한반도 평화기원법회 천장 7면
'격차해소' 다큐 시리즈 5면
원암스님 '리뷰' 15면

'천진불' 조계사 신흥사 등자승 '연비, 이 정도쯤이야…'

지난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보리수 새싹잎 수계식' (사진)이 열렸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입장한 등자승들은 사발을 마치니 외쳤던 아기부처님이 되었다. 그때도 연비의식은 따끔하다. 손가표정이 나무 재였다. 조계사 앞마당 가득 메운 사부대중에게 큰 축원을 선사해준다. 등자스님들이 하루 일과표를 살펴보면 대중 생활하는 스님들이 연보가 제법 보인다. 저녁공양 후 '경내 산책과 그 날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또 하루 일과를 마감한다.

제자교구본사 신흥사에서도 천진난만한 6명의 어린이가 어엿한 등자승으로 변모해 봉축행보대사로서 보현보살이기를 염원 바꾸고 있다. 신흥사주지 수은스님는 지난 4월 27일 국민법전에서 '천진불 등자승 사발 및 수계식' 을 봉행해 6명의 등자승을 배출했다. 신흥사복지재단 산하 반야어린이집 6~7세 남자 원생인 김상균(동국대)어린이 등 6명은 이날 사발만 위 광성선원장 수은스님 등자승 이름을 받고 부처님오신날인까지 21일 동안 출가수행의 생활을 체험한다.

신재호 기자 sin5018@bulgyo.com

불교계 '평화의 등불' 들다

개성공단 폐쇄 '위기' … 남북경색 국면 맞아 108산사기도회, 6·15실천위 등 화해주도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기로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에 촉매서도 불교계가 평화의 염원을 담은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을 이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남북 분단나라 불 한국 이은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 는 주제로 평화 기원명사가 봉행했다.

108산사 순례기도회와 사흘 도선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안행수 국회의원, 박상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이홍구 한국학사장 축사를 비롯해 108산사 순례기도회, 도선사 대중 등 1만 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한반도 긴장지수를 가라앉히기 위해 기원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근본적 반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간 화해한 군사적 대치를 완충하는 평화지대이자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최고의 평화안전 장치였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 보수도 반간대해와 고려 남은 남북대다임과 과감과 결별해야 한다" 며 "정부가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와 접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조계종 대표 명단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도록 다해야 노력해야 지 고 당부했다.

이해동 홍다영 기자

불비교 평화의 등불 들다

불비교 '평화의 등불' 들다

남북한 갈등 불교수행으로 변화 '가능'

탁낸한 스님 방한

16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세계적인 명상가이자 평화운동가인 탁낸한 스님(사진)이 "남북한 갈등은 화해 다스리는 불교수행을 통해서도 이해하는 화해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베트남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프롤빌리지 수행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탁낸한 스님은 불교TV와 조계종 총무원 초청으로 지난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3년에 이어 1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탁낸한 스님은 "20여 년 동안 사방에서 불교 명상수행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와 치유되는 과정을 수차례 지켜봤다"면서 "남북한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광된 태국의 정당 등 세상의 모든 갈등들을 지켜보고 고통과 해 하고 화해 다스려야 진정한 화해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이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탁낸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뵌 뒤 한국을 나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불비구 평화의 등불 들다

불비구 평화의 등불 들다

불비구 평화의 등불 들다